

농어촌공사, 완도 청용저수지 녹조 선제 대응... 제거제 600kg 살포

윤성수 기자 | 승인 2026.08.21 16:33

폭염·가뭄에 수온 상승하며 녹조 발생 전조증상 확인
주 2~3회 예찰·수질 모니터링 강화... 농업용수 수질관리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가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서 보트를 이용해 친환경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있다. 공사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거제 600kg을 살포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저수지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완도지역 농업용수 수질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지난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서 친환경 녹조 제거제 600kg을 살포하고 저수지 전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남부지방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한 데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청용저수지에서는 녹조 발생 전조증상이 확인됐다.

이에 해남·완도지사는 녹조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트를 투입해 저수지에 친환경 녹조 제거제를 살포했다.

해남·완도지사는 녹조 발생 이후 제거하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찰과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 2~3회 간격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저수지 수질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녹조 제거제 추가 살포 등 수질 개선 조치도 병행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은 “최근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예찰과 녹조 제거제 살포 등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수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성수 기자